벤젠 가격 계속“곤두박질"

갤론당 90센트 … SM · 페놀 등 유도품 수요 감소 · 크루드 약세로

유럽의 벤젠기업들은 4/4분기 벤젠가격 결정을 위한 비엔나 회의에 앞서 사전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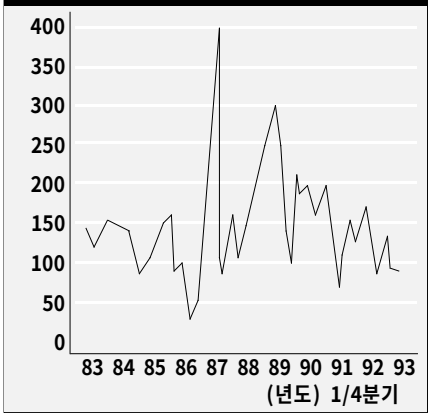
유럽의 벤젠 제조기업은 컨트랙트 FD기준 톤당 450~470DM으로 가격을 사전 조정했으나 이는 최근 미국이 10월 벤젠가격을 톤당 432DM수준인 갤론당 90센트로 공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 형성되어 있는 벤젠의 스파트 가격은 FOB기준 톤당 270~272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및 미국에서 벤젠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크루드가격이 bbl당 15.5달러로 떨어짐에 따라 가솔린 가격이 US 스파트 기준 갤론당 90센트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독일 마르크를 통용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컨트랙트 가격 약세는 3/4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 달러의 약화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유럽의 가솔린/벤젠가격의 편차



또 재고물량이 올해말이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고물량 처리 시기가 지연되는 것도 유럽산 벤젠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유럽의 벤젠생산기업들은 아틀랜틱을 중심으로 한 양지역의 벤젠제조기업은 가격인상을 위해 유도품 산업의 수요 저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정상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NCC의 낮은 가동률로 PY-GAS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 러시아로부터의 PYGAS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벤젠 톨루엔의 가격약세로 유럽 HDA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럽의 벤젠 수요는 92년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벤젠의 주요 유도품인 페놀, 카프로락탐, SM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벤젠가격은 상호연계가 밀접하며 벤젠가격은 가솔린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또 벤젠은 톨루엔/가솔린 블랜딩 또는 HDA를 통해 제조된다.

미국에서의 벤젠 스파트가격은 갤론당 6센트 떨어졌으며 계약 가격은 가솔린 가격의 약세로 갤론당 95센트로 하락했다.

또 최근 미국 톨루엔 가격은 옥탄계 수요의 증가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RVP 규제강화로 인해 올해 하반기(동절기) 가솔린용 블랜딩 톨루엔의 수요는 감소하고 Oxygenate MTBE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솔린에 의해 수요가 좌우되는 톨루엔이 가솔린의 옥탄계 사용 증가로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톨루엔 생산기업은 톨루엔의 과잉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톨루엔을 HDA플랜트로 다시 보내는 작업이 필수불가결하게 됨에 따라 가동이 중지된 HDA공장을 재가동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이들 공장이 풀가동되어도 톨루엔의 과잉물량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1993/10/25>